

지역 매아리



부안 계획면, 무술년 새출발
신년인사회 가져

부안군 계획면은 4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무술년 새해를 맞아 서로 안부를 묻고 합한 새해를 시작하려는 신년인사회가 관내 기관단체장을 비롯하여 일선지도자,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2018년 희망찬 새해 다짐을 했다.

계획면 이장 협의회 및 체육진흥회에서 주관한 신년인사회는 기관단체장의 새해 희망메시지 전달을 시작으로 계획면 이장 협의회 및 체육진흥회에서 마련한 계획면 민선 7기 케이크 커팅, 기념 사진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부녀회에서 준비한 떡국나눔 행사로 마무리됐다.

홍종희 계획면 이장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면민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가 성황리에 이뤄져 주민들과 화합·소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소방서, 부안상설시장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화재예방 만전

부안 상설시장에 화재 시 소화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가 호스릴을 이용한 비상소화장치 6세트를 설치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안소방서는 전통시장은 화재발생 시 상가와 점포가 인접해 있어 대구 서문시장 화재처럼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초기진화가 매우 중요해 시장 진입로 및 상가 인접 건물에 신규 비상소화장치한 3개와 기존 호스릴 3개를 교체하여 어느 곳에서든 소방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부안소방서장은 "이번에 부안 상설시장에 설치한 호스릴 비상소화장치가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에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시장 상인 등 관계자에게 사용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완벽한 화재대응능력을 갖춘 전국 제일의 안전한 부안 상설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정읍시, 사업 알리기 총력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전담 창구 설치

현장 체감형 홍보·접수 서비스 적극 추진

이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읍시가 현장 체감형 홍보와 접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이다. 단,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체 중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중 합법 외국인 근로자, 개인 운영 5인 미만 농·임·어업 사업장 등 최저임금 인상에 해고 우려가 큰 사업장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설치했다. 또,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리플렛 제작 배부, 시청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체는 사업체 관할 사회보험 3공단과 고용복지+센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업체 및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채무 제로 실현 빛 없는 지자체 된다

지방채 5년 앞당겨 상환

부안군(군수 김종규)이 2018년에는 채무제로(zero)를 실현해 빛 없는 지자체가 된다.

부안군은 지난 2017년 지방채 118억 원을 조기 상환한 데 이어 2018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지방채 44억 원을 조기 상환한 채무 제로(zero)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부안군은 오는 2023년까지 연차별로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환기간을 5년 앞당겨 2018년을 마지막으로 지방채 잔액 44억 원을 전액 조기 상환함으로써 채무 제로(zero) 달성 뿐만 아니라 약 3억8000여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부안군의 이번 채무 제로 달성을 위한 방안은 지역발달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 편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시민 중심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

선진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정읍시가 올해도 지속적으로 시민 중심 맞춤형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이달부터 버스도착 안내정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확보한 국비 1억5000만원 등 모두 5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으로, 중요 지점 승강장 30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법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인 먼저 가세요~ 교통문화운동도 전개한다.

시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의 일환으로 어르신과 어린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 '먼저 가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유관기관 T/F

팀 운영, 합동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누군가 지켜보지 않고 있어서 단속을 시행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교통질서 지키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기본이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용 만족도가 높은 교통 편의시설을 점차적으로 발굴·확대 설치하는 한편,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교통 편의 시설 확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앞장

홍보물 배부 등 피해예방 캠페인 펼쳐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한기를 이용한 방문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일명 뺑다방으로 알려진 방문판매는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등을 저가로 제시하며 유흥거리로 관심을 유도한 후 고가의 주방용품, 잡화 등을 판매해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하게 되고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혀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방문판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문판매 피해 예방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매일 방문판매업소 주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피해예방 캠페인을 집

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각종 공짜 상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곳은 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만, 만약 출입을 하게 되더라도 불법 행위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보게 된다면 즉시 신고(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해야 한다"며 "혹시 상품을 충동 구매하더라도 포장에 뜯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언제라도 반품할 수 있으며 만약 반품을 거절하면 꼭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민과 어르신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입히는 방문판매가 근절되도록 집중적인 점검과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민방위교육·시민강좌 강사 10명 위촉

정읍시는 4일 올해 민방위 교육과 시민강좌 강사 10명을 위촉했다. 시는 강사 위촉을 위해 지난해 12월 2018년 민방위교육과 시민강좌 강사를 공개 모집하고 선발했다.

관련해 시는 "민방위대원과 시민의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 등 생활안전 역량을 높이고, 국가안보와 자주 국방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설강좌는 ▲풍요와 수탈 그리고 풍류와 저항(유종국) ▲근대의 그늘 신태인 화호리 일대의 식민지 근대 문화유산(김재영) ▲동학농민혁명에서 동북아의 미래를 보다(조광환) ▲아티스트 백정기의 시의 항일 무장투쟁(이갑상) ▲일제강점기 친일과 항일의 역사(곽형주) ▲동북아 평화공존과 우리의 안보(최병훈) ▲민족의 수난 역사는 말한다(한수연) ▲화생방 방호 및 방독면 착용 요령(이은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김정욱) ▲지진·화재 대비요령(이유경) 등이다.

상반기 교육은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4월 2일부터 20일까지 정읍시청소년수련관에서 민방위대원과 시민 3200명을 대상으로 16개 인문학 강좌와 48개 실천체합 교육 프로그램을 갖는다.

인문학 강좌 주제는 '한국사 동북아 평화공존을 가리키다'이다.

또 실천체합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지진·화재 재난대비요령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48개 강좌가 운영된다.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각급 학교와 읍·면·동에서 청소년과 주민 4,000여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갖는다.

"물론으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구하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을 주제로 생활 민방위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예정이다.

6월 20일부터는 21일까지는 자원민방위대의 역사안보 현장 견학 프로그램인 '위대한 민족의 유산 대한민국, 소중한 지키겠습니다'를 운영한다.

하반기 교육도 8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다. 인문학 강좌 및 실천체합 교육 프로그램(8.8~8.11, 9.12~9.15)이 각각 20개 강좌로 진행되고,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요령 핵심 전과 요원 양성을 위한 여성민방위 응급처치 전도시교육(11.22~11.28)을 갖는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교육과 관련, "민주시민의 역량과 민방위 사대 대응 역량을 높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심폐 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돌연사 방지에 주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부안강산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